



2025년 4월 2일

KIWOOM 매크로 따라잡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한국 수출, 불안정한 흐름

한국 3월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IT 품목 수출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일평균 수출액도 늘어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과 미국의 수요 둔화는 한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과 중국의 점진적인 수요 회복 조짐은 한국의 급격한 수출 위축 가능성을 낮추겠지만 미국 성장 둔화를 고려할 때 2분기 수출의 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우호적인 기저효과와 대외 수요 여건 속에 품목별 차별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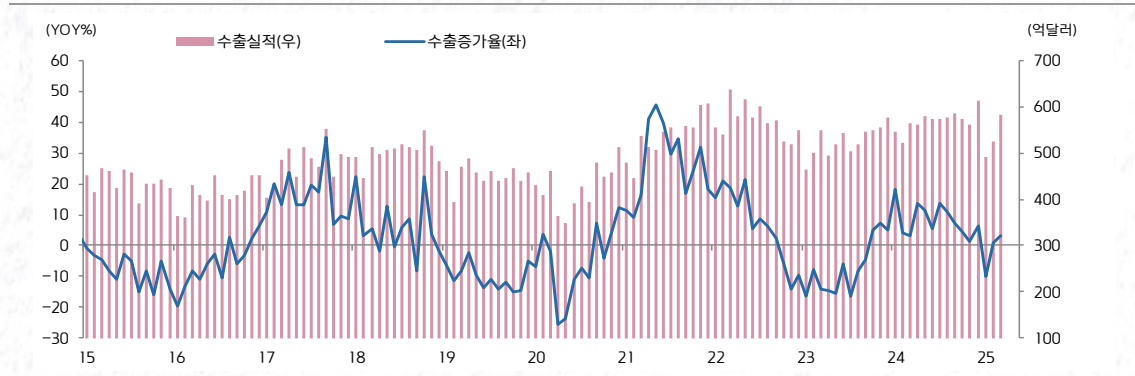
한국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하며 전월(+0.7%)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늘어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양호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5.5% 증가해 2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로 2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수출이 늘어났다. 반도체 수출은 범용 반도체 고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에 따라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컴퓨터 SSD 수출은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플러스로 반등하였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부문이 크게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소폭(+1.2%)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선박 수출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15개월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부품과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은 8개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정유사의 정기보수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더해지면서 두 자릿수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철강제품 수출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차전지와 가전, 일반 기계도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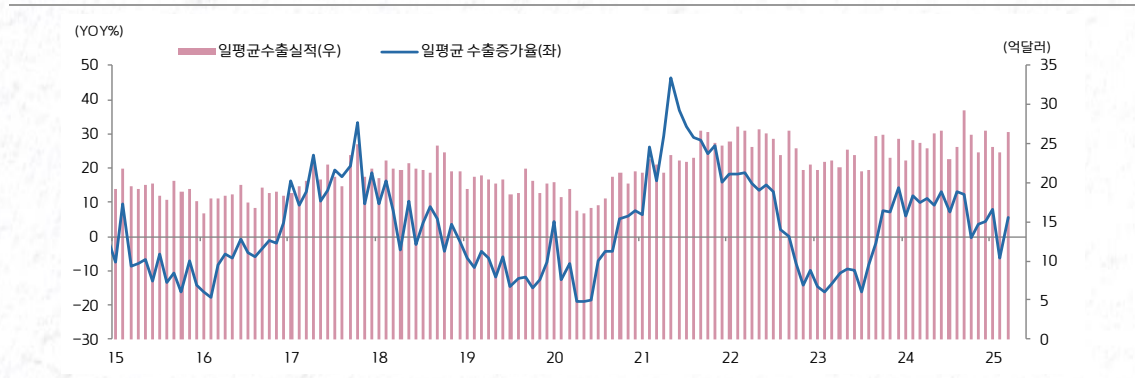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9대 지역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3% 늘어났으며 대아세안 수출도 IT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이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 전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늘었다. 대 EU 수출은 선박과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반면,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과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에도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4.1%를 기록하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수출 실적과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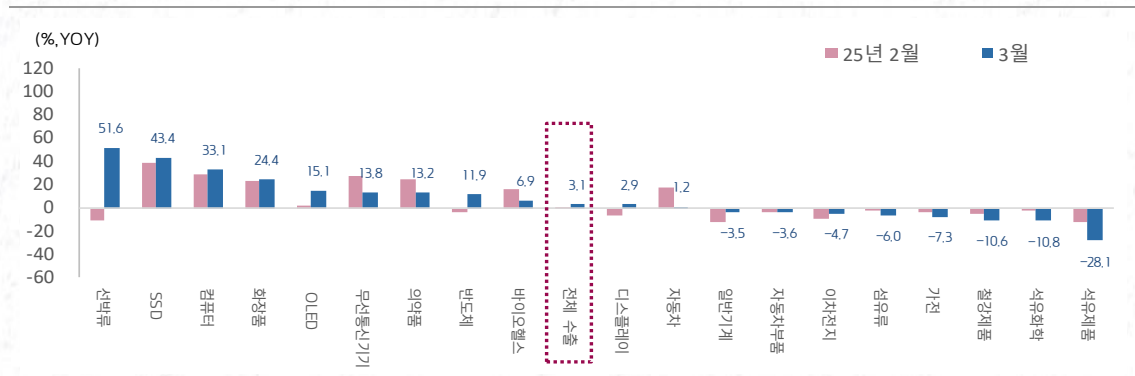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일평균 수출 실적과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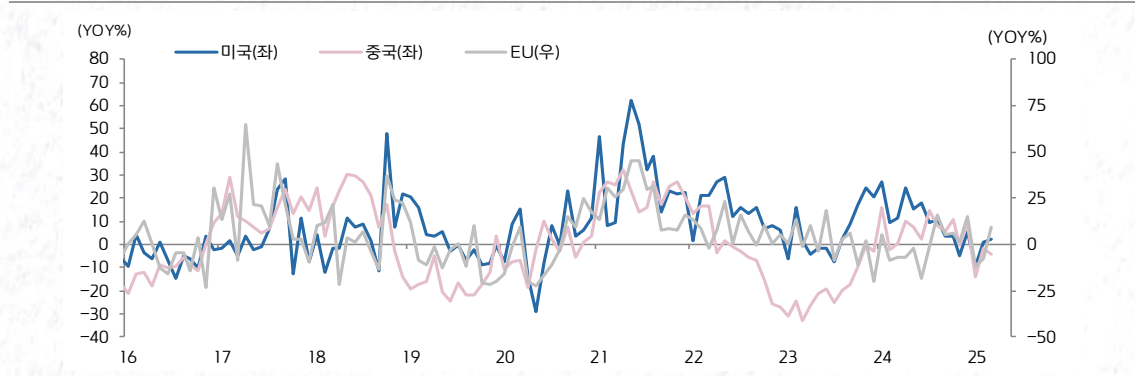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수출 품목별 수출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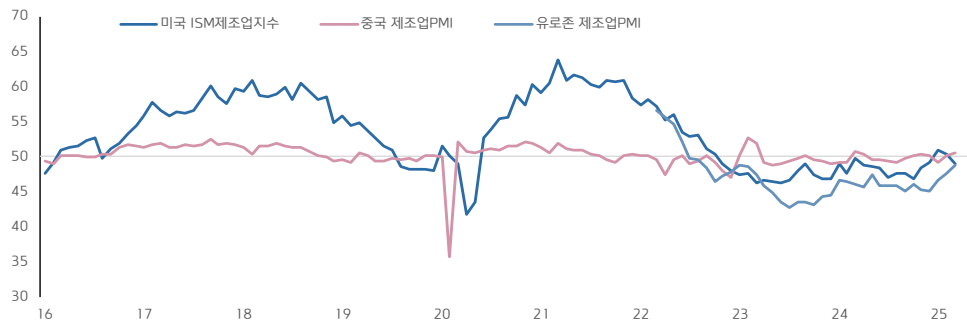
2분기 한국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수시로 잡음을 낼 수 있고, 이에 따른 미국의 수요 둔화가 한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율은 작년 높았던 기저효과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불안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나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당분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 수출이 과거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기처럼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 유로존 제조업 체감경기가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고,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수요의 개선 요인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구환신 등 재정정책 확대를 통해 내수 부양에 힘을 쏟고 EU 내에서는 독일의 재정 지출 움직임이나 ECB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소비 및 서비스 부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수요 둔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모멘텀은 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한국 수출의 견인은 주로 미국의 수입 수요였으며 올해에도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 기준으로 19.1%로 중국(17.3%) 보다 높다.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의 투자 보류와 선제적으로 이어진 가수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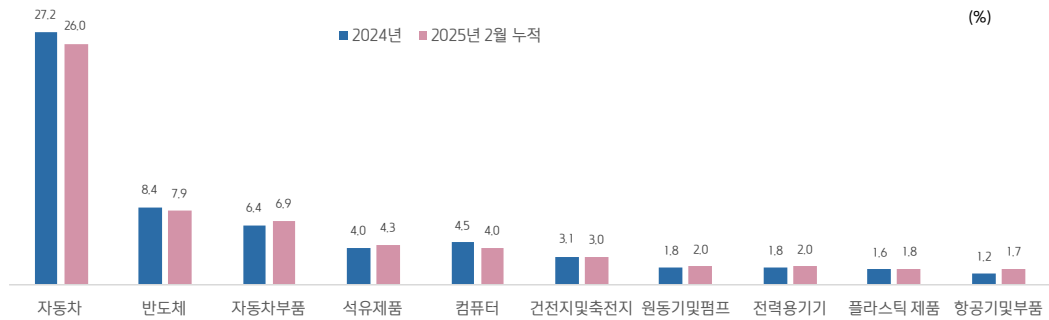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대내외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분기 한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비 -2.1%로 지난해 4분기(4.2%)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내수 역시 부진했음을 고려할 때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추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2분기 중 대외 수요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만큼 추경 편성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정치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단기적인 내수 진작이 동반된다면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움직임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SM제조업지수와 중국, 유로존 제조업 PMI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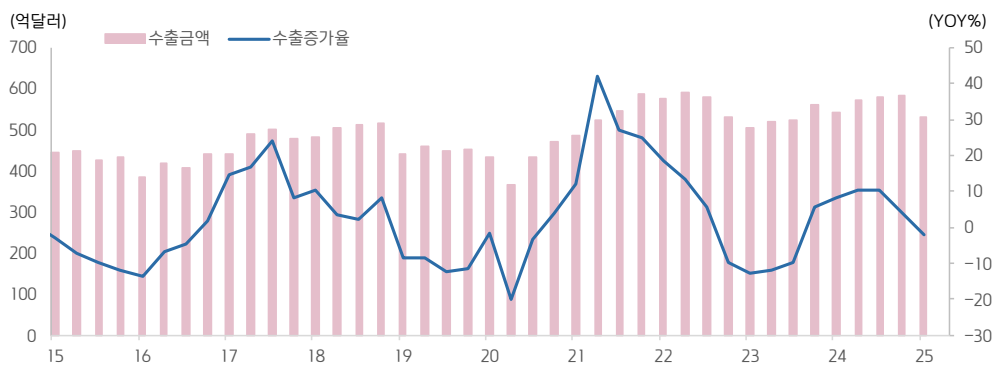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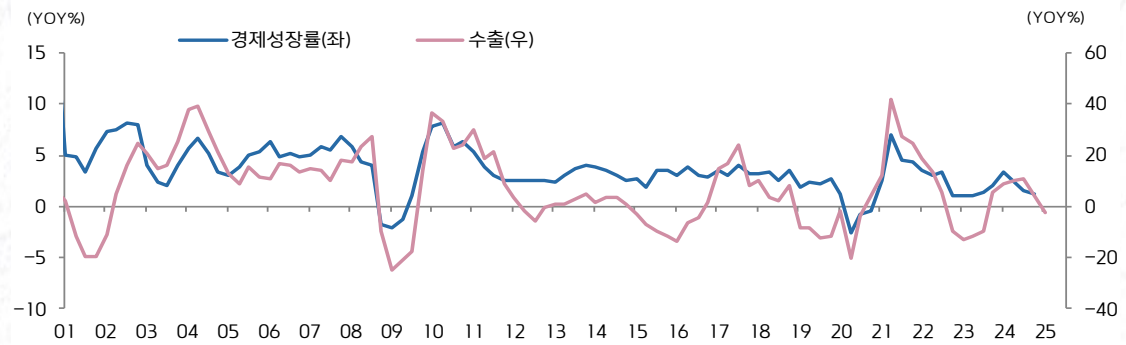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분기 수출 실적과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경제성장률과 수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